

일본의 공세적인 농림수산업 추진전략*

윤명중
(주일한국대사관 농무관)

1. 농림수산업·농산어촌으로부터 일본을 건강하게

지난 3월 15일 아베 일본총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협상에 일본이 참여한다고 선언하였다. 일본이 TPP에 참여하게 되면 농수산업 부문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농협을 비롯한 농업계가 격렬하게 반대운동을 하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농림수산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1월말 동 성내에 「공세적인 농림수산업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적극적인 농림수산업 전개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농림수산성은 앞으로 세계 식량시장의 규모가 급속하게 확대될 것이며, 국내의 생활양식(lifestyle)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를 일본 농림수산업 발전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농산어촌에 존재하는 풍부한 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공세적으로 농림수산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크게 ① 농식품 수요의 프론티어(Frontier) 확대, ②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가치사슬(Value Chain) 구축, ③ 생산현장

* (mosanjai@nate.com)

(농업경영체, 농지 등)의 강화 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1.1. 일본의 농림수산업과 농산어촌의 잠재력

일본인의 정신과 혼이 스며들어 있는 일본식 먹을거리 만들기의 기술과 벼농사를 경영하는 등 농식품 관련 사회기반시설,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일본은 식문화와 사람을 소중하게 접대하는 일본인의 심성 및 한가롭고 풍요로운 농촌의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 3위의 삼림율과 6위의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 면적을 자랑하는 세계유수의 삼림과 해양자원, 국가 전체 에너지 공급의 43%를 차지하는 농산어촌의 재생 에너지 등은 일본의 농림수산업과 농산어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라 할 수 있다.

1.2. 농산어촌에 불고 있는 순풍(follow wind)의 적극적 활용

2009년에 340조 엔이었던 세계의 식량 시장의 규모는 2020년에는 680조 엔으로 약 2배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헤이세이(平成) 농지개혁」¹⁾에 의하여 농지법 개정전보다 약 5배(1,071개사)로 일반법인의 농업부문에의 참가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농림수산업과 관련된 산업을 비롯하여 비영리단체(NPO법인), 건설업, 의료·복지 등 타 업종 부문의 다양한 주체가 농업부문에 참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치유(힐링, Healing), 건강지향 등 새로운 생활양식(lifestyle)을 추구하는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반면, 옥수수과 대두 등의 주요 식량자원의 국제가격이 2012년에 과거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세계의 식량과 에너지 가격이 최근 급등을 계속하고 불안정한 상황도 함께 전개되고 있다.

1.3. 농림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지금이 농림수산업과 농산어촌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분기점이라고 분석하고, 이러한 기회를 놓치게 되면 농산어촌은 더욱 쇠퇴하여 국가경영에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여, 일본 농림수산성은 2013년 1월 29일 「공세적인 농림수산업 추진본부」²⁾를 설치하여 세 가지 정책방향을 수립하였다.

첫째, 농림수산식품의 수요 프론티어(Frontier) 확대, 둘째,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가치

1) 2009년도(헤이세이 21년)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의 소유와 이용 분리, 비농업부문의 농업참가 완화.

2) 2013.1.29일 농림수산대신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세적인 농림수산업 추진본부」 설치.

사슬(Value Chain)의 구축, 셋째, 농업생산현장의 강화 등이다. 특히, 농산어촌에 전래적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성장과 다면적 기능을 원활하게 발휘하도록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2. 수요 개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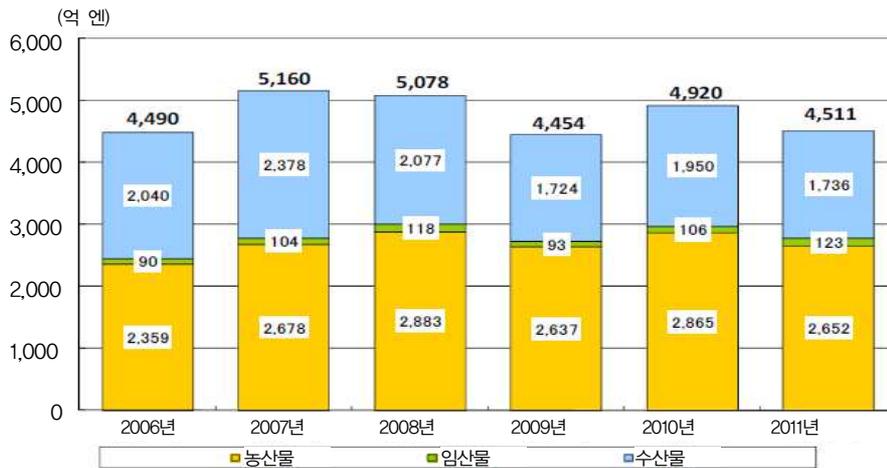
국내외에 일본의 강점을 살린 농림수산 식품시장을 창조하는 등 수요를 확대하는 시책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로 향후 10년 이내에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세계의 식량시장에 일본의 농림수산식품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여 일본의 「식문화와 식량 산업」(Made by Japan)의 해외 진출과 일본의 농림수산식품(Made in Japan)의 수출축진을 동시에 추진한다. 또한 일본 국민들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에 대응하는 농림수산 식품을 개발한다.

2.1. 정책 목표

현재 4,500억 엔 수준의 일본산 농림수산식품의 수출규모를 1조 엔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한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등에 의한 식품수요의 정체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그림 1 농림수산식품 수출액 추이



2.1.1. 글로벌 식량시장의 확대를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활용

농림어업 성장산업화 펀드(A-FIVE)³⁾를 설립하여 국내 6차 산업화 기업체를 육성하여 일본산 농림수산식품을 6차 산업화로 지원한 기업체가 세계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Made in Japan'을 전개하면서 해외 시장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를 출자하여 국내의 식품기업이 해외의 식품기업을 M&A 또는 공장설립 등의 적극적인 'Made by Japan'을 전개한다.

2.1.2. 새로운 수요의 개척

전자레인지 또는 프라이팬으로 즉석 요리가 가능하도록 간편한 수산물 'Fast Fish'의 추진을 지원하고 건축물에 목재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실증실험중인 CLT⁴⁾의 보급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는 농림수산식품의 기술을 개발한다. 이러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CLT 보급을 위한 규격·기준의 정비 요구 등 관련 단체로부터의 규제개혁 요망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을 도모한다.

1) 'Fast Fish' 개발 사례

“생선을 먹고 싶어도 ① 조리하기가 어렵다, ② 조리방법을 잘 모른다”라는 것이 소비자의 현실인 점을 반영하여 전자레인지 또는 프라이팬으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가공한 'Fast Fish'를 개발하여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생선 소비를 증가시킨 사례(2012년 8월까지 384개사 2,123상품 선정)

그림 2 아마구치현 하기시의 후루사토하기식품협동조합의 「빠져 먹는 생선



자료: 日本農林水産省, 2013, 「攻めの農林水産業の展開」.

3) A-FIVE :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Fund corporation for Innovation, Value-chain and Expansion Japan.

4) CLT(Cross Laminated Timber) : 목재 널빤지를 직각으로 교차시켜 접착시킨 강도가 강화된 건축용 목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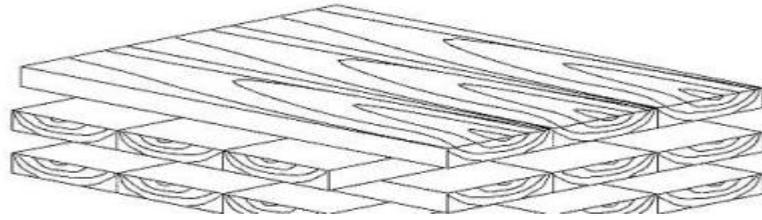
☞ Fast Fish 요건(수산가공품과 조미료 2개 부문)

① 조리시간이 간단, ② 부담 없는 가격과 용량, ③ 향후 수요확대 가능성

2) 대규모 건축물에 CLT 목재이용 사례

유럽에서 이미 건축자재로 이용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시제품 개발과 강도시험 등을 하고 있는 일본산 CLT보급 추진 사례

그림 3 CLT 목재가공



자료: 日本農林水産省, 2013, 「攻めの農林水産業の展開」.

2.1.3. 일본 식문화를 활용한 애외식품 시장 진출 확대

일식전문점 또는 편의식품점이 진출하여 「일본식 정식」 또는 「오뎅」 등 일식이 현지에 보급되면 관련 일본산 식품의 수출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게 된다.

또한 일본 식문화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록(2013.12월에 등록여부 결정)을 추진하고, 2015년 밀라노 국제박람회(먹을거리(食)를 테마로 하는 엑스포)에 공식참가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성내에 「밀라노 엑스포 챌린지 본부」를 설치하는 등 일본의 식문화의 침투를 통한 농림수산물식품의 해외진출을 도모한다.

그림 4 밀라노 국제엑스포



자료: 日本農林水産省, 2013, 「攻めの農林水産業の展開」.

이와 관련하여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수산물 등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식품안전에 관한 인증취득절차를 국내에서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하여 강화되고 있는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의 완화 등 규제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3.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가치사슬(Value Chain) 구축

식품산업을 비롯하여 타 업종과의 신결합(Innovation)에 의하여 제1차 산업의 부가가치를 크게 높여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6차 산업화를 통하여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Value Chain'을 구축한다. 이러한 6차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펀드를 확충하고, 이를 활용하여 산업 간 연대를 더욱 확대하는 시책을 추진한다.

3.1. 추진 성과

일본의 농림어업 총생산액은 2009년도 기준 11.3조 엔이고, 농업·식량 관련 산업의 총생산액은 95.3조 엔으로 추정되고 있다. 생산한 농산물 등을 직접 판매하는 산지

직매소는 전국에 16,816개 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산지소 추진노력을 확대해 왔으며, 농업생산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판매농가는 2000년 11%에서 2010년에는 21%로 증가하였다. 2013년 2월 1일자로 (주)농림어업성장산업화 지원기구를 설치하여 농림어업성장산업화 펀드를 설립하여 직접 출자와 함께 민간의 출자를 유도하여 6차 산업화 사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3.2. 펀드의 활용으로 6차 산업화의 본격추진

6차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농업과 식량 관련 산업(95.3조 엔)의 규모를 확대하여 그 대부분을 농어촌 지역으로 유치하고, JA그룹, 지방은행 등 전국 및 지역차원의 다양한 펀드를 설립하여 복지·의료 관광 등의 다양한 업종과 연대하여 6차 산업화가 지역주도로 확대되도록 추진한다. 나아가 장애인 고용 의무화 정책과 연계하여 기업의 농업참가를 유도하고 이를 위하여 소수력 발전의 수리권 취득과 관련된 절차를 원활하게 하도록 요구하는 민간부문의 규제개혁 요구를 적극 수용한다.

3.3. 지적 재산의 전략적 보호 및 활용

장인기술(匠의 技, 숙련 농가의 생산관리와 노하우(暗黙知))를 IT화하여 현장의 지혜와 기술이 계승되도록 하고, 새로운 품종 육성자의 권리와 상표권을 단일화하여 보호하고, 2008년에 야마가타현의 장려품종으로 지정된 이후 니가타현산 고시히카리의 대체품종으로 주목받고 있는 야마가타현산 신품종 쌀 브랜드 「쓰야히메(윤기나는 공주)」 등 지역 특산의 농림수산물과 식품의 지적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한다.

그림 5 쓰야히메 브랜드



그림 6 고시히카리보다 맛있는 쌀(식미검정결과)



자료: 日本農林水産省, 2013, 「攻めの農林水産業の展開」.

4. 생산연장의 강화정책

농업자의 고령화 진전, 경작 포기지의 확대라는 일본 농업의 가장 큰 장애물을 뛰어 넘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의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는 시책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4.1. 연왕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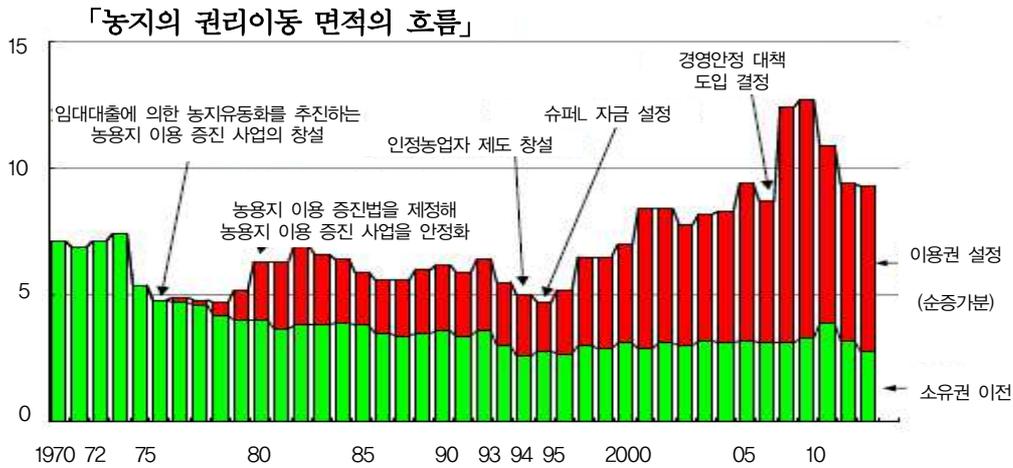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농업 구조개혁정책의 성과로 일본의 농업구조는 상당한 수준으로 변화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토지 이용형 농지면적의 30% 수준이 20ha 이상의 대규모 경영체가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농지의 규모화가 진전되었으며, 최근 10년간 법인경영체 수는 2배로 증가한 수준인 12,500개(그 가운데 매출액이 1억 엔 이상 층이 24%)이고, 20ha 이상인 법인경영체는 22%에 이르고 있다.

한편 가족경영체의 대규모화도 착실하게 진전되어 5ha 이상 경영층이 전체 가족경영체 농지면적의 45%를 점유하고, 집락영농의 형성과 법인화도 상당히 진전되었다.

또한 리스 방식에 의한 기업의 농업부문 참가가 완전히 자유화⁵⁾됨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농업 사업참여가 2009년 농지법 개정 전에 비하여 약 5배로 확대되었다.

5) 헤이세이(平成) 농지개혁.

그림 7 농지의 권리이동 면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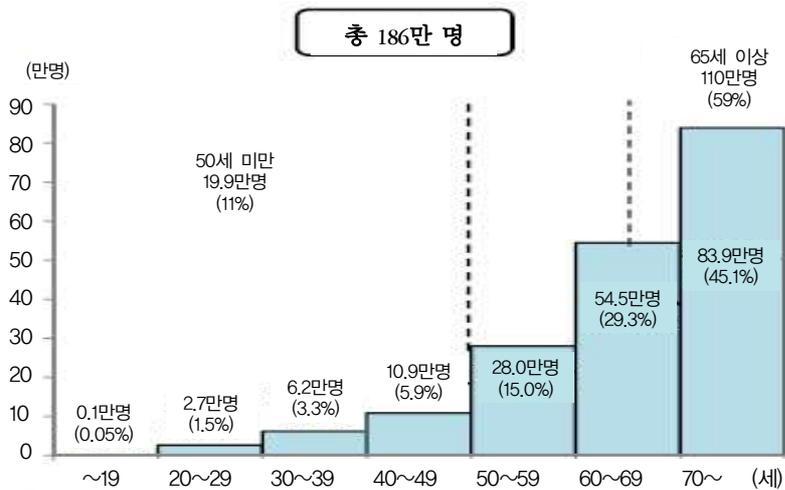


자료: 日本農林水産省, 2013, 「攻めの農林水産業の展開」.

4.2. 구조개혁의 큰 전환점 도래

일본의 농업자 중 65세 이상이 약 60%에 이르는 반면 50세 미만은 약 10%에 불과할 정도로 농업자의 고령화가 진전되어 있으며, 또한 약 40만ha의 경작 포기지의 약 절반은 비농가의 토지소유이고 상속되는 농지는 농지법상의 권리이동 허가제의 대상

그림 8 연령계층별 기간적 농업종사자 수(2011년)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농림구조 동태 조사」 등.

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라 경작포기 농지가 확대되고 있어 농업의 구조개혁이 시급히 요구되는 큰 전환점이 되고 있다.

4.3. 법인경영 및 대규모 가족경영의 적극적인 추진과 청년취농의 촉진

지역 내 농업경영자들과 긴밀한 접촉을 통하여 농업경영체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이들에게 농지가 규모화 될 수 있도록 합의형성 시스템(사람·농지 계획)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법인 및 대규모 가족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청년취농과 법인에게 고용취농을 촉진하도록 보조, 융자, 세제 지원 등의 시책을 총동원한다.

4.4. 농지 규모와 추진과 경작포기지의 해소

경작포기지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이용권을 강제로 설정하거나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거쳐 이용자를 알선하는 등 경작포기지의 해소를 위하여 농지 소유자에게 적극적인 지도를 실시한다. 농지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중개조직을 시정촌 단계와 현 단계로 중층적으로 설치하고, 농지 집적을 가속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대구획화와 밭의 관개 및 배수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러한 시책들은 여당(자민당)의 정권공약인 「농업경영체 종합지원」, 「일본형 직접지불제」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여당과 함께 논의하여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참고문헌

日本農林水産省. 2013. 「攻めの農林水産業の展開」. 日本農林水産省.